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모형*

김 미 중**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부부들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녀의 수와 출산의 시기 및 간격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얻는 생식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천명된 바 있다(UNFPA, 1998). 피임지식의 보급과 피임이용 확산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여 생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며, 성공적인 피임을 통해서 여성들은 자율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임은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임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구성장 억제제를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산아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계획 사업을 펼쳐온 결과 합계출산율이 1970년 평균 4.5명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도 1964년 10%였던 것이 1997년 80.5%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보건복지부, 1998; 조남훈, 1997; 통계청, 2000). 그러나 가임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유산 경험율도 높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에는 가임여성 중 44%가 인공유산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고, 이들 중 반 수 가량은(19.3%) 두 번 이상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하였다고 하여(조남훈, 1997), 우리나라 여성들의 과연 피임행위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피임관련 연구들은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임이나 가족계획의 연구들이 양적으로는 많았지만 주로 피임의 실태나 피임의 의학적 효과를 검증하는 기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가 조기달성 되면서 피임에 대한 관심은 다소 주춤해졌으며, 수량적인 목표를 강조하던 가족계획 정책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족계획이 되도록 정책의 방향전환을 표방하였다(조남훈, 1997). 그러나 실제로 가족계획 관련 연구단체의 주기적인 실태 조사 이외에는 가족계획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피임연구의 경향은 성과 피임 경험을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조망해 보는 사회학적, 여성학적인 연구들(장수정, 1998; 조윤정, 1996)이 연구되고 있으나 미혼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현상학적 방법으로 부부의 피임경험을 탐색하거나(조옥순, 1998),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피임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박신애, 1997) 등의 폭넓은 방법론적 접근이 시도되

* 2001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약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대상자의 경험의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간호적용이나 일반화가 어렵다. 또한 계획적 행위이론 적용한 피임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기혼여성에게 피임효과를 본 연구(김명희, 1997, 1998)에서 다양해진 피임연구 경향을 찾을 수 있으나 계획적 행위이론의 이론검증에 충실함으로서 이론의 개념들 이외에 피임의 특성이나 피임에 대한 관련 요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요인들을 포괄하여 피임행위를 폭넓게 설명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효율적으로 피임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 영향과 경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기혼 여성의 피임행위의 효과적인 실천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효과를 파악하여 피임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3. 용어의 정의

1) 외생변수

(1) 피임에 대한 지식

(the knowledges of contraception)

지식이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어떤 것(something)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임에 대한 지식이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과 피임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지각된 위협감(the perceived threats)

지각된 위협이란 한 개인의 어떤 질병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이 합해진 개념이다(Becker, 1974).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이 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민감성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정도를

말하며, 지각된 심각성이란 원치 않는 임신이 될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에 따른 제반 변화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

성적 자율성은 자기결정과 책임을 갖는 것,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갖는 것, 성적·생식적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며(김계숙, 1999)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성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특히 여성이 성적 욕구 표현 및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성이나 생식건강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타고나거나 훈련된 인성적 특성을 의미한다.

(4) 부부간 의사소통

(the communication within couple)

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호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대화의 효율성, 만족감 양상을 말하며, 성생활과 피임에 관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성 관련 의사소통과 부부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일상적 의사소통을 합한 개념이다.

2) 내생변수

(1) 피임에 관한 태도

태도란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의미하며(Ajzen, 1991), 임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피임 행위 이행에 대해 내리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말한다.

(2) 지각된 행위통제

관심행위 수행에 대한 쉽거나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즉,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난이성의 정도(Ajzen, 1991)를 말하며,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의 스스로의 확신을 말한다(Bandura, 1977).

(3) 성관계 계획성

자신의 성관계를 시간적, 상황적인, 성관계의 패턴을 파악하고, 인지하여 성관계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Beckman & Harvey, 1996).

(4) 피임행위

피임행위는 출산을 조절하고, 임신을 피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피임행위란 기혼여성과 그 배우자가 최근 6개월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구용 피임약, 질외사정, 콘돔,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살정제, 폐미돔 등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피임행위는 지난 6개월 동안 피임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를 의미하는 피임행위 지속성과 6개월 동안 사용했던 피임방법에 따른 피임 사용 정확성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중 피임과 높은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보고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 하였다. 또한 나이, 종교, 학력 등 변화될 수 없는 고정 요인보다는 간호중재에 유용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피임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1) 피임지식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식은 여러 연구를 피임과의 관련성이 인정받고 있다. Hornick, Devlin, Downey & Baynham(1986)은 피임의 성공적 수행자와 비성공적 수행자들을 구별하는 유의한 구별인자로 피임지식(표준화 상관계수=.36)을 보고하였다. 성공적인 피임사용자들은 비 성공적 수행자들에 비해, 피임법의 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었고, 피임교육을 처음 받았던 연령이 더 높았으며(평균= 15.5세), 자신이 알았던 초기 피임법은 정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으며, 현재는 피임정보를 충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 기혼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김진희(1999)는 스스로 개발한 지식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10점 만점의 피임지식 점수는 피임 지속적 행위자의 경우 6.7

점, 그렇지 않은 경우 6.6점으로 지식과 피임행위와의 유의하지 않은($p=.99$) 관계를 나타냈으며, 성과 피임의 관련된 지식과 피임의 자기효능, 그리고 피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Levinson(1995)의 연구결과도 연구자의 문헌고찰과는 다르게 지식과 피임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지식, 효능감, 피임행위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논의하였다. 또한 Hinkle, Johnson, Gilbert, Jackson & Lollis (1992)의 연구처럼 콘돔사용과 지식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지식과 피임사용의 관계는 다소 일관성이 부족해 논쟁적인 변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지식과 행위와의 인과성에 대한 지지가 양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각된 위협감

건강 신념모델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지각된 위협감은 개인이 특정 건강문제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민감성과 심각성이 지각된 위협감이 된다(Becker, 1974). 지각된 위협감은 인간이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심리적인 준비로서 건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이 지각한 위협의 정도이며, 특정한 건강문제에 대하여 지각한 민감성과 그 상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으로 보았다(Rosenstock, 1974).

임신에 대한 위협감과 피임행위와의 관계는 Condelli (1986)에 의해 수행된 피임선택의 사회적, 태도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632명의 미혼 및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은 임신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가, 만약 예상치 못했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된다면 그 임신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였고, 세상에서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1점)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다(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피임행위자를 대표하는 구강피임약 사용자와 효과가 낮은 피임법으로 대표되는 다이어프램 사용자간의 지각된 위협감 변수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될 것 같은 민감성이 높으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되면 자신의 생활이 심각하게 악화된다고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피임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적 자율성

성 생식을 조절하는 행위인 피임행위는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르게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며, 도덕적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때로는 오해받을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는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억압적 규범이 적용되어, 종속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자율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장순복, 1996).

사회심리학이론인 자기 효능감과 피임이용과의 관계를 밝힌 Levinson(1986)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을 잘하는 경우, 무방비 성교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장(assertive)을 할 수 있으며, 피임도구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성관계와 피임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성성(sexuality)을 수용하는 여성이 성공적인 피임이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58명의 20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빈번하게 무방비 성교(frequent episodes with unprotected intercourse)를 하는 것은 임신예방에 대한 자기 주장성(assertiveness)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r = -.15, p < .05$), 피임사용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과 부적 상관관계($r = -.18,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주장성과 자기 몸에 대한 책임감은 성적 자율성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 기혼 여성의 경우와는 상황적으로 상이한 배경이지만, 성적 자율성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한 남성우세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터어키의 경우,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반대 때문에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한 Kulu(199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여성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과 이에 대한 권리의 의식고취 등이 피임증진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 자율성은 Hornick 등(1986)의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인식(sexual self-awareness)으로 표현된다. 성적 자기인식 과정은 성장발달과정에 형성되는 것이며, 성적 자기표현과 성적 자기 책임감으로 구성되고 이 두 가지 요소는 피임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기 표현을 잘 할수록, 성적 책임감을 높여 가질수록 피임사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감, 자신에게 생식건강의 차원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절능력, 또는 피임준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자신감 등과 관련된 여성의 특성이 피임행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 역시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Burger와 Inderbitzen(1985)의 연구는 피임의 단계를 설명하는 Byrne's model을 개념틀로 미국 남녀 미혼 대학생을 188명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 의사소통 수준과 성적의사소통의 수준이 피임사용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the best predictor)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파트너 간의 상호관계는 피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성 의사소통을 잘하는 여성의 경우 피임의 실천율이 높았고, 또한 효과적인 피임법을 선택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남성이 피임사용을 찬성하지 않으면 여성도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콘돔, 질외사정법 등과 같은 피임은 성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금욕은 상호간의 신뢰와 함께 안정된 상호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Wetkovich와 Grote(1981)에 따르면 심리사회적인 성숙과 의사소통 기술이 피임선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콘돔 사용시에는 의사소통과 역할 수행 기술(role-taking skill)이 중요시된다 하였다. 또한 파트너와의 피임에 관한 의사소통 능력이 많을수록 피임을 잘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Swanson, 1988). 그러므로 피임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임사용자들이 피임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충분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협조가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피임에 대한 태도

여성이 효과적인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Sawyer와 Beck(1988)은 지식의 부족보다는 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Wetkovich & Grote(1981)은 그들의 연구에서 피임약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신에 대한 태도, 성생활을 시작한 나이, 성파트너와의 관계, 성교횟수를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미혼여성에서의 피임행위 설명모형을 발표한 Herold

& McNamee(1982)의 연구에서는 설명모형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가 피임행위 설명모형에서 피임행위에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며, 피임행위를 33%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TRA 이론을 적용하여 103명의 흑인 여대생에게 콘돔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를 한 Jemott & Jemott (1991)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p < .0001$) 콘돔사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할수록($p < .0001$) 콘돔사용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Nigeria 927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된 태도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피임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남성들도 피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임에 관한 태도가 피임행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Odimewu, 1999).

또한 성에 대한 태도와 피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Hynie & Lydon(1996)는 성적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성혐오성(erotophobic)에서 성애호성(erotophilic)까지의 범위를 갖는 Fisher 등(1979)이 개발한 SOS(Sexual Opinion Survey)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피임행위의 일관성과 효과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에 대해 감정적 지향성을 갖고 있을수록 고위험 성행위에 몰입할 수 있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여($r = -.48, p < .05$) 성과 관련된 태도가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Weinstein과 Goebel(1979)는 피임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6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피임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여 남성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피임이 여성만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덜 했다고 보고하였다.

6)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 수행에 대한 쉽거나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 통제신념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회나 자원 및 행위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의 존재 유무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Ajzen, 1991).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현재의 관점은 Bandura(1977, 1982)의 지각된 자기효능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Bandura(1982)의 자기효능의 개념은 앞으로의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얼마나 잘 실행시키는지 하는 판단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대 소녀들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contraceptive self-efficacy)과 피임행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Levinson (1986)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효과적인 피임행위를 한다고 보고한 것도 피임과 지각된 행위통제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목표하는 행위를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계획된 행위이론(TPB)에 포함된 개념이다. 피임행위는 행위수행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의 행위통제에 대해 얼마나 잘 지각하여 지각된 행위통제를 유사하게 하느냐가 행위의 설명력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문헌고찰결과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수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었다. 지연옥(1994)의 연구에서 금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금연행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1차 조사 $\beta = .14, p < .01$, 2차 조사 $\beta = .16, p < .01$), Schifter와 Ajzen(1985)의 경우 체중감소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체중감소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beta = .44, p < .01$). TPB 이론을 적용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김명희(1997)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beta = 0.33, p = 0.001$). 그러나 남은숙(1995)의 경우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는 행위통제에 대한 지각이 모유수유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지지되지 못하였다($\beta = .23, p > .05$).

이와같은 문헌고찰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는 실제통제(actual control)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우,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행위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하게 자신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통제를 잘 반영하여 행위통제를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와 이론에 비추어, 자신이 피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각 정도가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7) 성관계 계획성

피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성관계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또는 "나는 돌발적인 성관계를 좋아한다."는 등을 대답한다고 Hugh & Torre(1987)는 그들

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그들은 여대생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한 피임 사용 평가 척도(contraceptive use-rating scale)에서 하부 개념으로 성관계의 계획성을 포함하여 계획성 있는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효과적인 피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성관계를 계획성 있게 하는 것과 효율적 피임행위를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으며, 오히려 성관계를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피임행위를 잘하는 데 대한 선행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고 볼 수 있다.

Bauman(1971)과 Needle(1977)은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단일응답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응답으로 성관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임을 준비하는 것은 성관계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처럼 보여서 싫다는 응답도 많았다. 성관계의 특성상 완전히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또한 규칙적인 성관계가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의외의 시기와 상황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피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콘돔사용에 있어서 지속적 사용(consistent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Beckman & Harvey(1996)이 밝힌 지속적 콘돔 사용자 특성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도록 동기화 되어있으며, 성관계를 계획할 능력(ability to plan)을 가지며, 성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며, 이전의 피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은 성교 의존적 방법(coitus-dependent method)인 콘돔, 다이어프램, 경부캡, 페미돔, 살정제 등을 피임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은 더 뚜렷하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성관계의 계획성이란 자신이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성관계를 하게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옥순(1998)의 피임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성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성욕구에 의해 대체로 주도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충동으로 인해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성관계를 하게 되고, 또한 술과 관련된 무계획성 무방비 성교도 흔히 일어나는 사례였다. 이들 무방비 상태의 성은 많은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의 원인이 되었다. 박신애(1997)는 자연적 가족 계획 경험에서 성관계 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성욕조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면에 투철한 의지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충동적으로 또는 술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성관계가 무방비 성관계로, 원치않은 임신으로, 또 인공유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게 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2. 피임행위의 측정

피임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떻게 피임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Burger와 Inderbitzen(1985)의 연구에서 피임의 측정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성관계를 했던 때에 피임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백분율로 자가보고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피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평가하는 Adler 등(1988)도 역시 최근 1년 동안 각 피임방법의 사용빈도를 '성관계시 언제나', '성관계의 절반이상', '성관계의 절반정도', '성관계의 절반이하',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측정하고 있다. 피임사용지속성 개념은 때로는 피임사용 성실성(loyalty of use)이라고 명명되거나(Grady, Hirsch, Keen & Vaughan, 1983), 또는 피임 일관성(contraceptive consistency)으로 표현되기도 한다(Hynie & Lydon, 1996).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들은 피임의 측정을 피임 실천 유무만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피임행위의 특성을 여전히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rnick 등(1986)은 성공적 피임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성공적인 피임행위자는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으로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임법을 사용하면서, 무계획적인 임신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무계획적 임신여부를 피임측정에 포함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여대생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한 피임 사용 평가 척도(contraceptive use-rating scale)에서 Hugh와 Torre(1987)는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types), 사용된 피임법의 빈도, 성관계의 계획성, 성관계에 대한 책임, 최근 1년간 유산이나 임신을 한 기왕력(history)이 있는지의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점수화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Hornick 등(1986)과 Hugh와 Torre(1987)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임행위 측정에 있어서 피임행위 자체보다는 피임에 선행되는 요인 또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성관계의 계획성이나,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 또한 피임행위의 결과측면의 사건인 무계

획 임신여부를 포함하여 피임행위로 측정하고 있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피임행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피임행위를 지속성(continuation)과 효과성(effectiveness)의 피임행위의 두 차원으로 보고, 각 피임별 효율성에 따라 Pearl Index라는 효율성 지수를 고려한 Laing(1985)는 피임행위를 보다 합리적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피임행위의 객관적인 수량화에 접근한 연구로는 Zaneveled, Zaneveled 와 Gravett(1984)이 개발한 피임지표(the pregnancy protection index, PPI)을 들 수 있다. PPI는 성관계와 피임행위를 기반으로 임신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이것은 개인이 얼마나 임신에 대해 보호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그것은 1) 얼마나 자주 피임법을 사용하는가? 2) 어떤 유형의 피임법을 사용하는가? 그 피임법의 효과성은 어떤가? 3)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하는가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값이다. PPI는 각 피임법의 피임효율에 대해 Hatcher(1978)가 발표한 이론적 피임 효율치를 근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사용된 피임법이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피임법의 종류와 사용 빈도 등을 산출하는 임신예방 지표이기 때문에 모순을 갖는다. 실제 피임이 사용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임이 정확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임특성과 피임관련 연구에 대한 Meta 분석을 시도한 최근 Coleman(1999)의 연구에 따르면 피임 측정하기 위하여 묻는 내용과 피임의 기간이 각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미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 연령도 매우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피임의 측정은 최근 사용한 피임법, 가장 즐겨 사용하는 피임법, 이전에 사용했던 피임법, 사용하지 않았던 피임법, 지난 5년간, 지난 1년간 피임사용, 최근 2,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피임사용, 마지막 성교시 피임사용여부, 첫 번째 성교시 피임사용 여부, 또는 시간적인 정의 없이 그냥 최근 사용한 피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임에 대한 질문도 응답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연구결과와 비교와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해 피임측정의 표준화를 제언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피임행위를 묻는 기간에 대해서도 다

양한 기간을 측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위험 건강행위인 흡연, 음주, 약물, 보호되지 않는 성행위, 약물복용 등의 행위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시기적인 기준으로는 지난 6개월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Jessor, Donovan, & Costa, 1991).

결론적으로 문헌고찰 결과 개인의 일반적인 피임행위 지속성 정도를 사정한 점수와 각 피임 방법 실행의 정확성 정도를 사정한 후 정확성 점수에 피임 효율계수를 처리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본 연구의 피임행위의 측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임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피임관련 연구에서 지금까지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난제이다. 피임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묻는 이분법적인 질문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성과 정확성, 효율성 등이 고려하여 피임행위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피임실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려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한국의 기혼여성을 표적모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기혼여성을 근접모집단(accessible population)으로 하여 다음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임의표출(convenient sampling)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 1)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20세-49세의 폐경 되지 않은 기혼여성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영구피임 또는 자궁내 장치(IUD)를 하지 않은 자
- 3) 현재 임신, 산욕기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자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피임행위와 피임관련 변인들에 대한 10개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위

협감은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일상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으로, 그리고 피임행위는 피임 지속성과 피임 정확성의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이 들 3개의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이론변수가 그대로 단일 측정변수가 되었다.

피임지식은 피임에 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1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위협감을 묻는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은 박소미(1999)가 사용한 도구들을 피임이라는 연구상황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여 개발하였다. 성적 자율성 도구는 6문항의 5점 척도 도구로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묻는 성관련 의사소통 도구 역시 문헌고찰과 면접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일상적 의사소통은 채규만 등(1998)에 의해 번역된 미네소타 부부 대화 진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Inventory) 도구와 홍보선(1994)이 번역한 Bienvenu (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의 일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피임에 관한 태도는 김명희(1997)가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지각된 행위통제의 측정도구는 남은숙(1994)과 지연옥(1993)의 모유수유와 금연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도구를 참고로 본 연구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대상자가 자기부부의 성관계를 시간적, 상황적인, 성관계의 패턴을 파악하고, 인지하여 성관계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성관계 계획성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피임행위의 측정도구는 피임 사용 지속성과 피임사용 정확성의 두 가지 측정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피임행위점수는 5점 척도의 피임사용 지속성 점수와, 5점 척도의 피임사용 정확성 점수에 각 방법별 피임효율지수를 곱한 값들의 평균값을 합한 값이다. 피임 행위 점수 계산에 사용된 효율지수는 Hatcher(1998)는 두 개의 효율계수 중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피임했을 때의 피임효율을 곱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60~.88의 범위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실험설계상의 문제점이나 연구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구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구의 적절성을 사정함으로써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0

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대상자 4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처리를 강조하였고,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수거하도록 하여 응답기피를 최소화하였다.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소재 5개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간호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모나 언니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응답 후 회수하도록 하였고, 대전시에 위치한 1곳의 어린이집과 1곳의 유치원에서 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연구에 협조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어린이 편에 보내고 응답한 후 밀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여 이해시킨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후 응답자에게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임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여 주었으며, 사례로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320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77부를 제외한 243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실수, 백분율, 총점, 평균 등 서술적 분석과 도구의 신뢰도는 SPSS 8.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점증을 위해 ANOVA 분석 후, Duncan test하였다.
- 3) 연구자가 제시한 예측모형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과 가설검증은 Lisrel 8.12 win program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피임행위 관련 특성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1-48세로 평균연령은 35.0세였다. 결혼기간은 5-9년이 101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9.14년의 결혼기간을 갖고 있었다. 월수입은 7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범위로 평균 290만원이었다.

〈표 1〉 가설적 모형의 부합지수

부합 지수	χ^2	df	χ^2/df	GFI	AGFI	RMR	NNFI	NFI	CN
	43.03	26	1.65	0.97	0.93	0.03	0.97	0.97	257.72
	(p=0.019)								

우리나라의 가구 근로소득 평균 190만 4천원(홍영림, 1997)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월수입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직업이 있는 여성이 과반수 이상(144명, 59.3%)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총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150명, 61.7%), 대상자의 58.0%(141명)가 원치 않은 임신 경험하고 있었는데, 1번이상 인공유산을 경험한 경우는 39.1%(95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평균 인공유산 경험률 44%보다 약간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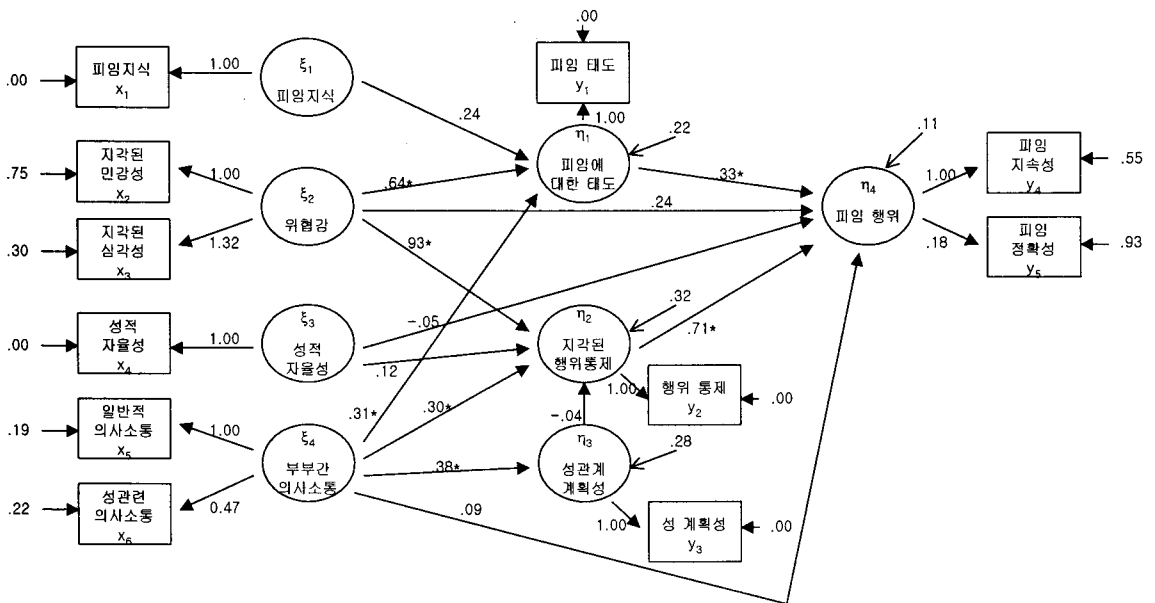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피임행위 지속성 점수는 1-5점의 범위를 갖고며 평균 3.93점(표준편차 1.16)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임행위 정확성은 평균 3.79점(표준편차 1.66)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난 6개월간 사용한 피임법 중에서 질외사정법(77.3%)과 콘돔(71.2%)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임행위 정확성에 피임효율 지수를 가중치로 준 평균값과 피임행위

지속성을 합한 개념인 피임행위 점수는 최소 4.8점에서부터 최대 38.8점을 나타냈으며, 피임점수의 평균은 21.9점(표준편차 6.73)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행위의 차이는 피임행위 지속성이 연령, 결혼기간, 월수입, 결혼기간에 따라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피임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지수는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부합지수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hi-square값에서 자료와 가설모형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Q - plot 기울기도 1 보다 작았다. 세부적 부합지수를 살펴보면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은 가중 최소자승법에 의한 모수추정치(γ, β)



〈그림 1〉 수정모형의 경로 도해

〈표 2〉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부합지수 비교

부합지수	χ^2	df	χ^2/df	GFI	AGFI	RMR	NNFI	NFI	CN
가설모형	43.03	26	1.65	0.97	0.93	0.03	0.97	0.97	257.72
	(p=0.019)								
수정모형	20.54	26	0.79	0.99	0.96	0.03	1.01	0.98	538.87
	(p=0.77)								

와 표준오차, t-value, 다중 상관자승치(SMC)를 이용하였다.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에 있어서 변수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17개 중에서 4개의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가설적 모형의 수정 및 검증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와 간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가설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 지수로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 추가지수, 고정지수를 중심으로 이론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모형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고정지수가 작고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비교적 적었던 4개의 경로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경로는 성적 자율성이 피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t = -0.90$), 피임지식이 지각된 행위통제에 미치는 경로($t = -0.52$), 피임지식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경로($t = 0.15$), 성관계 계획성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경로($t = 0.31$) 이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최종 수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수정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 부합도 모두에서 가설적 모형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수정모형을 구성하는 변인들이 피임행위를 설명하는 설명력인 SMC는 80%로 높게 나타났고, 수정모형에서의 13개의 경로 중 9개의 가설경로가 지지되었다.

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최초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했던 17개의 가설을 중심으로 가설적모형과 수정모형의 효과계수와 t값에 근거하였다. 가설검증의 수준은 $p < .05$ 로 정하였다.

가설 1.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gamma 11$)는 가설적 모형($-0.13, t = -0.40$)과 수정모형($0.24, t = 1.18$) 모두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

각되었다.

가설 2. 예기치 않은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이 클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gamma 12$)는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0.64, t = 3.2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3.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gamma 13$)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0.12, t = 0.9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4.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다($\gamma 14$)는 직접효과($0.31, t = 4.3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5. 피임에 대한 위협감이 클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 것이다($\gamma 22$)는 직접효과($0.93, t = 3.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 피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 것이다($\gamma 21$)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0.22, -0.5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7.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 것이다($\gamma 23$)는 가설적 모형($-0.99, t = -0.49$)과 수정모형($0.12, t = 1.07$)에서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8.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 것이다($\gamma 24$)는 직접효과($0.30, t = 2.4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성관계 계획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 것이다($\beta 23$)는 가설적 모형($0.02, t = 0.19$)과 수정모형($-0.04, t = -0.56$)에서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0.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성관계 계획성이 더 높을 것이다($\gamma 34$)는 직접효과($0.38, t = 4.7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1.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gamma 41$)는 가설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경로

는 없고 간접효과만 존재하였으나 간접효과(0.08, $t=0.9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12. 지각된 위협감이 클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r_{42})는 직접효과(0.24, $t=0.6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0.87, $t=3.4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총효과(1.11, $t=3.03$)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13.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r_{43})는 직접효과(-0.05, $t=-0.37$)에서 성적자율성이 낮을수록 피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으나 효과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효과(0.08, $t=1.03$)가 더 해져서 총효과(0.03, $t=0.19$) 역시 원래의 가설과 같은 가설의 방향성을 보여 주었으나 결국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14.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r_{44})는 직접효과(0.09, $t=0.5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0.30, $t=2.6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총효과(0.39, $t=2.53$)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15. 피임에 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β_{41})는 직접효과(0.33, $t=1.9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6. 지각된 행위통제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β_{42})는 직접효과(0.71, $t=5.6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7. 성관계 계획성이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할 것이다(β_{23})는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0.04, $t=0.31$) 및 총효과(0.05, $t=0.3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수정모형에서는 간접효과 경로만 존재하였는데 간접효과(-0.03, $t=0.55$) 역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V. 논 의

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서 변인들간의 모형 검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임행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각된 행위통제로 밝혀졌다. 이것은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피임을 잘 할 수 있고 또 피임하는데 있어서 겪어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피임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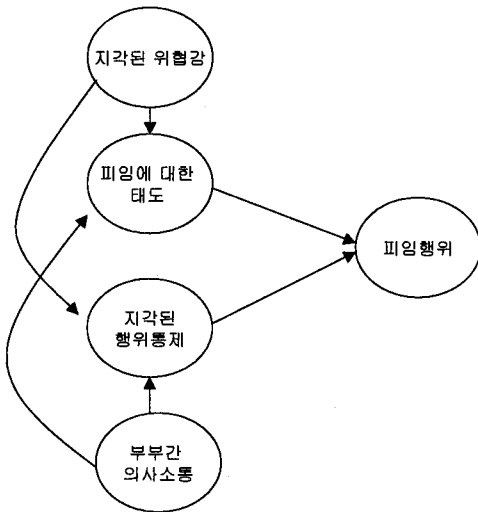
지각된 위협감은 피임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총효과에 있어서 피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위협감은 피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에 큰 영향을 줌으로서 피임행위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이 높을수록 즉, 자신이 예기치 않게 임신이 될 것 같다고 더 민감하게 많이 지각을 할수록, 그리고 그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피임행위를 더 잘 하게 된다는 것이며,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피임행위를 결정 짓는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지각된 민감성과 지각된 심각성으로 구성되는 지각된 위협감은 건강 신념모델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이미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Condelli(1986)은 피임선택은 threat variable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지각된 민감성(susceptibility),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심각성, 자신이 임신될 것 같다고 느끼고 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성일수록 더 효과적인 피임법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 것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위협감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이 피임행위를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밝혀진 것은 앞으로 피임행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피임행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한다면 대상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민감하도록,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부부간 의사소통은 문헌에서 일관성 있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에서는 지지되지 못하다가 수정모형에서 효과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피임행위를 잘하게 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피임행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종속변수에 대한 변수의 직접효과나 상관관계만을 밝히는 분석이었다

면 간과되었을 사실인데, 변수간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밝혀지는 공변량 구조분석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지식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지되지 못할 만큼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는 성적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성적자율성은 국외 연구에서 특히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내연구에서는 여성학적 시각으로 소수의 대상자를 통한 사례연구에서 심층면접 과정에 도출되어온 개념이다. 사례연구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는 심층적인 자료 탐색은 가능하지만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신뢰성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며 성적 자율성은 정련된 도구가 개발된 후에 다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의한 경로들을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험감이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에 영향을 주어 피임행위를 증진시키는 두 개의 간접경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피임에 대한 태도와 피임에 대한 행위통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2개의 경로가 더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 피임을 설명하는 주요요인과 피임의 관계

본 연구결과 비교적 간명한 모형이면서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들과 그 경로를 설명하여 설명력이 높은(피임행위의 SMC = 80%) 모형을 구축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우리나라 가구당 전체 평균 소득 평균보다 더 높았음을 감안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경험적 분석을 기초로 가설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며,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요인간의 구체적인 경로와 영향력을 규명하여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이론의 탐색과정을 거쳐 피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재구성하여 기혼여성의 피임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피임에 대한 지식,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험감, 성적자율성, 부부간 의사소통을 외생변인으로 하였고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성관계 계획성을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 피임행위도 피임행위 지속성과 피임행위 정확성의 2가지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243명의 대상자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인 부합지수와 세부적 지수를 근거로 하여 3개의 경로가 제거된 수정 모형을 연구의 최종적 설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수정모형에서는 가설적 모형보다 부합지수가 높고 모형의 설명력(SMC)은 피임행위를 80% 설명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경로가 수정모형 전체 경로 13개중 9개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는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험감($\gamma = .24, t = 0.67$)이 높을 때, 부부간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잘 하고($\gamma = .09, t = .54$), 피임에 대한 태도($\beta = .33, t = 1.99$)가 긍정적

일 때, 피임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통제감인 지각된 행위통제($\beta = .71, t = 5.62$)가 높을 때 잘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은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피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총효과($\gamma = 1.11, t = 3.03$)에서 볼 때 피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 역시 피임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간접적으로 피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효과($\gamma = .39, t = 2.5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임지식(총효과 $\gamma = .08, t = .91$)은 피임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성적 자율성(총효과 $\gamma = .03, t = .19$)도 마찬가지로 피임행위에 영향력이 적은 변수로 나타났다. 자기 부부의 성관계 패턴을 파악하고 계획할 수 있는 성관계 계획성($\beta = -.03, t = -.55$)도 역시 피임행위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피임행위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지각된 위협감이 총 효과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대상자가 피임을 잘 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대한 자각,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 제 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지각된 위협감이 피임행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간호 실무에서 피임행위에서 지각된 위협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위협감을 개인이 잘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피임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위협감을 자극하여 피임에 대한 동기화를 시키는 것이 피임행위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피임행위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지각된 위협감과 지각된 행위통제를 간호중재 개발전략에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피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연구를 제안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임행위의 수량화를 위한 피임 측정 도구가 앞으로의 피임연구에서 사용되어 됨으로

서 이 도구가 검증되기를 제안한다. 다차원적인 피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피임도구의 개발은 앞으로 피임연구의 차원을 높이게 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성적 자율성이 피임에 대한 태도나 지각된 행위통제나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지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기혼여성은 성적자율성을 자신의 사고과정에서는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가 제작한 성적 자율성 측정 도구의 측정 오류인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적자율성에 대한 신뢰성 높고 타당성 있는 측정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공세권, 김필권, 손성희 (1992). 한국에서의 가족유형과 출산행태. 서울 : 한국인구 보건연구원.
- 김계숙 (1999). 여성의 성건강 개념개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1997).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한 피임교육 프로그램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명희 (1998). 기혼여성의 피임행위 예측을 위한 계획적 행위이론 검증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3), 550-562.
- 김은실 (1991). 발전논리와 출산력. 또하나의 문화편 (1991). 새로쓰는 성이야기.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진희 (1999).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남은숙 (1994).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미 (1999). 한국여성의 pap 도말검사 지속적 참여 행위에 관한 설문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신애 (1997).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사용경험에 관한 문화기술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1998). 보건복지백서. 서울 : 보건복지부.
- 장수정 (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1996).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 간호학 탐구.

- 5(1). 71-89.
- 조남훈, 이규식, 홍성렬, 김성희 (1992).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분석. 서울 : 가족계획연구원.
- 조남훈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옥순 (1998). 가임기 부부의 피임체험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정 (1996). 여성의 성적 주체성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지연옥 (1994). 균 흡연자의 금연행위 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연구. 연세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규만, 최규연, 송정아, 홍숙자 (1998). 부부가 함께 말하기와 듣기. 서울 : 한국 가족상담 교육 연구소. p10-11.
- 홍영림 (1997). 대우패널 기초보고서4. 한국인의 경제 활동. 서울 : 대우경제연구소.
- 홍보선 (1994).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결정 유형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Adler, N. E., Kegels, S. M., Irwin, Jr., C. E., & Wibbelsman, C. (1990). Adolescent contraceptive behavior : An assessment of decision process. J of pediatrics, 116, 463-471.
- Ajzen, I. (1991). The Thoe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ndura, A. A., & Adams, N. E. (1977). Anaysis of self Efficacy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uman, K. E. (1971). Selected aspects of contraceptive practices of unmarried students. Medical Aspect Human Sex, 5, 76-89.
- Becker, M. H.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In M. H. Beker (e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behavior. Charled. B. Slack.
- Beckman, L. J., & Harvey, S. M. (1996). Factors Affecting the Consistent use of barrier methods of contraception. Obstetrics & Gynecology, 88(3), 65s-71s.
- Berger, D. K., Perz, G., Kyman, W., Perez, L., Gorson, J., Menedez, M., Bistriz, J., Blanchard, H., & Dombrowski, C. (1987). Influence of family planning counseling in adolescent clinic on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J of Adolescent Health Care, 8, 436-440.
- Burger, J. M., & Inderbirtzen, H. M. (1985). Predicting contraceptives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communication, knowledge, sexual anxiety and self esteem.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4), 343-350
- Coleman, L. (1999). Comparing Contraceptive Use Surveys of Young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8(3), 255-264.
- Condelli, L. (1986). Social and Attitudinal Determinants of Contraceptive choice: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4), 478-491
- Dawson, D. A. (1986).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adolescent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8, 162-170.
- Fisher, W. A., Byrne, D. R., Edmunds, M., Miller, C. T., Kelley, K., & White, L. A. (1979). Psychological and situation-specific correlates of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university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5, 38-55.
- Grady, W. R., Hirsch, M. B., Keen, N., & Vaughan, B. (1983). Contraceptive Failure and Continuation among Married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70-75, Studies in Family Planning, 14(1), 9-19.
- Hatcher, R. A. (1998). Essential of contraceptive technology: a handbook for clinic staff.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 center for communication program.
- Herold, E. S., & Mcnamee, J. E. (1982). An Explanatory Model of contraceptive use Among Young Single Wo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8(4), 289-304.

- Hornick, J. P., Devlin, M. C., Downey, M. K., & Baynham, T. (1986).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ontraceptors: A Multivariate Typology. Social work practice in sexual problems, 17-31.
- Hughes, C. B., & Torre, C. (1987). Predicting effective contraceptive behavior in college females. Nurse Practitioner, 12(9), 44-54.
- Hynie, M., & Lydon, J. E. (1996). Sexual Attitudes and Contraceptive Behavior Revisited : Can There Be Too Much of a Good Thing?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3(2), 127-134.
- Jemmott, L.S. & Jemmott, III, J.B. (1991). Apply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AIDS risk behavior : condom use among black Women. Nursing Research, 40(4), 228-233.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lu, I. (1990). Husbands as decision-makers in relation to family size: East-West regional differentials in Turkey. Turkish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2, 41-64.
- Laing, J. E. (1985). Continuation & effectiveness of contraceptive practices: a cross sectional approach. Studies in family planning, 16(3), 138-153.
- Levinson. R. A. (1986). Contraceptive Self-efficacy: A perspective on Teenage girls' contraceptive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2(3), 347-369.
- Levinson, R. A. (1995). Reproductive and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teenage women. Adolescence, 30(117), 65-85.
- Needle, R. H. (1977). Factors affecting contraceptive practices of high school and college-age students.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June, 340-345.
- Odimegwu, C. O. (1999). Family planning Attitudes and Use in Nigeria : A Factor Analysis.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5(2), 86-91.
- Rosenstock, I. M. (1991). The Health Belief Model : explaining health behavior through expectancies. In K. Glanz, F. M. Lewin, & B. K. Rimer, (ed.). Health belief model and health educ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 Ross, J. A., Rich, M., & Molzan, J. P. (1988). Management strategies for family planning programs. center for Population and family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NY
- Sawyer, R., & Beck, K. H. (1988). Predicting pregnancy and contraceptives usage among college women. Health Education, 19, 42-47.
- Swanson, J. M. (1988). The process of finding contraceptive op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0(4), 492-503.
- UNFPA(유엔인구기금) & PPFK(대한가족계획협회) (1998). 세계 인구현황, 대한 가족계획협회.
- Weinstein, S. & Goebel, G.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eptive sex role stereotyping and attitudes toward Male Contraception Among Male. J of Sex research, 15(3), 235-242.
- Zaneveled, J. L., Zaneveled, R. V., & Gravett, A. E. (1984). the pregnancy protection index: A framework for the systematic study of pregnancy protec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0, 279-292.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Abstract -

Key concept : Contraception, Married women,
Explaining model, Covariance
structural model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Contraception Behaviors of Married Korean Women

*Kim, Mi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structural model of a contraceptive behavior in Married Korean women. A hypothesis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health belief model,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contraception. The model was built by seven constructs. Four exogeneous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were consisted of the contraceptive knowledges, the perceived threats, the sexual

autonomy and the communication within a couple. Four endogenous variables were consisted of the attitudes toward contraception, the perceived control, the ability to plan an intercourse and the contraceptive behaviors. Empirical data for testing the hypothetical model were collected by the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243 Korean married women.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by this researcher and their Cronbach's alpha scores were ranged from .60 to .8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ver. 8.0)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LISREL program(ver. 8.12a) for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it could be suggested that contraceptive behaviors be greatly affected by the perceived threats, the communications within couple, the attitudes toward contraception and the perceived control. Finally this model would be useful for the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of nursing.

* RN. PhD. PartTime instructor, DaeJon University, DaeJon, Korea.